

특별기획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식 개최

〈백제역사 유적지구〉

‘익산 세계로 미래로’ 주제 아래 지역주민 등 2,000여명 참석

익산 관광자원 수확여행상품 인기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미륵사와 왕궁리 유적의 역사적, 교육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비롯해 전통시장, 보석박물관 등 익산만이 가진 관광자원을 활용한 수확여행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및 수도권 지역 학생 250여명은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및 보석박물관, 고스라ک 북부시장 등을 방문하여 익산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배우고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한 전통시장 장보기 미션 등을 통해 색다른 재미를 느끼고 돌아왔다.

익산시가 전라북도관광마케팅지원센터 및 수도권 주요 철도여행사와 협력하여 출시한 이번 수확여행은 교육여행 열차인 E-train을 활용한 상품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여행사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관광마케팅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가 지난 8일 오후 미륵사에서 각계각층의 주요인사와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 익산 세계로 미래로’를 주제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전라북도도와 익산시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정현을 익산시장, 이춘석 국회의원, 황헌 도의장 소병홍 시의장, 학계, 언론계, 종교계, 지역주민 등 각계각층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해 7월 8일 독일 본에서 개최된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대한민국 12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념하고 200만 전북도민과 30만 익산시민의 열렬 속에 이룬 세계유산 등재의 기쁨과 역사적 의미를 함께하는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진행됐다.

오후 6시부터 진행된 행사에서는 세계유산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유공자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이에 앞서 익산역사문화와 세계유산 등재 후회안정 등 전북의 문화발전을 위해 헌신하다 2014년 열반하신(故) 김삼룡 원광대 총장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이 자리에는 고인을 대신해 장남 김원오씨(대동남 대표)가 함께해 그의 송고한 뜻을 되새겼다.

또한 나산화 문화재정장, 조배숙 의원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오시덕 공주시장 등 주요인사들이 축하영상을 통해 1주년을 축하했다.

세계유산도시지구 가입증서 전달식에는 제럴드 콜롬보 OWHC협회장을

대신해 세계유산도시지구 야태지역 사무차에서 익산시장에게 증서와 헌장을 전달했다.

특히 이날 송하진 전북도지사,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해 시민, 어린이, 장애인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 유네스코세계유산의 도시 익산 세계로 미래로’를 외치면서 세계유산의 도시 익산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식후행사에는 WBS원음방송 조은형의 사회로 초청가수 남진, 김연자, 박일준 등 인기가수의 축하공연이 마련돼 시민들의 흥을 돋웠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기념사에서 “작년 오늘은 세계유산의 도시 익산이 세계로 미래로 뻗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이 된 순간이었다.”면서 “세계유산을 더욱 빛나는 인류의 유산으로 보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호원대 스포츠단, 대학운동부 지원사업 선정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스포츠단(단장 이명찬)이 2016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억28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이 사업은 대학 운동부 운영 지원을 통한 운동부 육성지원 및 대학스포츠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국대학스포츠총연합회에서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평가는 대한체육회 경기가맹단체 57개 종목 중 1개 종목이상 운영하고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최종 지원대상 82개 대학 중 호원대는 10위에

선정됐다.

올해 지원받는 사업에는 엘리트스포츠 진흥 대학운동부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사용되며 훈련비, 훈련용품비, 대회출전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호원대학교 스포츠단은 야구, 축구, 검도, 우수풍류, 펜싱, 태권도 등 6개 종목의 스포츠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특히 호원대는 지난해 전국 검도 선수권 대회의 우승자 이창훈 선수와 올해 3월 우수 국가대표 선수 5명에게 출하는 등 눈부신 성과를 올리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문예진흥기금 사업 공모

군산시는 지역문화 활성화와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지원을 위한 2016 하반기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을 공모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기금사업을 공모해 총 9개 사업 대상을 선정했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상반기 기금지원액중 전액본 2500만원을 재공고 추진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27일까지이며, 신청지역은 군산시 관내 소재를 두고 1년 이상 활동한 문화예술단체나 개인이다. 대상사업은 국악, 무용, 문인, 미술 등 총 11개분야이다.

기금신청을 원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1년간 활동실적을 첨부해 군산시 문화예술과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해경 ‘해양오염사고 예방 특별강조기간’ 운영

오는 17일까지 어촌계 별 간담회 개최...잠수펌프 철거 등 현장홍보 단속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해경의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는 오늘부터 9월까지 ‘해양오염사고 예방 특별강조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해양오염사고 발생은 총 15건으로 이 가운데 비응항과 고군산군도에서 5건(33%), 군산 외항과 연도, 어청도 인근에서 9건(60%)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5건의 해양오염사고로 모두 2만 7237 l의 오염원이 바다로 흘러 나갔

다. 특히 비응항과 고군산군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대부분 어선 부주의에 의한 사고였으며, 그 외에는 선박사고로 인한 2차 피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경은 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어촌계 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선저폐수 무단방류에 사용되는 잠수펌프 철거 등의 현장홍보를 실시하고 단속에 돌입할 방침이다.

또 화물선과 유조선, 준설선에 대해서는 ▲사고대비 비상계획서 이행 여부 ▲선내 발생 오염물질 적정처리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양환경의 특성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의 해양오염을 유발할 경우 최고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고 과실의 경우에도 최고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며 국가 방재비용도 행위자가 부담해야 한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 중앙지구대 교통안전취약자 교육·홍보·안전장비 점검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장은 교통안전취약자인 농기계·보행보조용의자차 운전자에 대한 교육·홍보강화 및 안전장비 점검을 통한 교통사고(보행자)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령화된 농촌마을은 농기계 도로주행 증가 등으로 인한 농기계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도로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마을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등 노인아울서실 방문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협회 협조, 보행보조용 장애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농기계·보행보조용의자차 후부 안전반사판 부착여부를 확인하여 낡은 반사판 교체·반사판 시인성 저해요소 제거 및 주행등 조명등 작동여부 점검하는 등 교통안전취약자 교통안전을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의회 한동연 의원 도시사 유공자 표창 수상

지난 7일 전북도에서 개최하는 201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도시사 유공자 표창 시상에서 익산시의회(의장 소병홍) 보건복지위원장인 한동연 의원이 표창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동연 위원장은 1980년도에 대한어머니회 익산지회의 창립회원으로 2008년 1월부터 익산지회장 직을 2015년까지 수행하면서, 2012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익산시의 전국 제호 여성친화 도시를 위한 서포터즈 활동과 지역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통한 양성평등 사회실현 및 여성권익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한편, 한위원장은 제7회 정반기 익산시의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였으며, 지난 5일 제7회 하반기 상임위원장단 구성시에는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 지곡동 ‘꿈담음 생태놀이터’ 인기

자연친화적 소재 사용 안전한 놀이기구 설치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발맞춰 군산시가 조성한 ‘꿈담음 생태놀이터’가 어린이들과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5월 지곡동 564-1 일원에 ‘꿈담음 생태놀이터’를 조성했다.

‘꿈담음 생태놀이터’는 아파트와 건물만이 존재하는 도심에서 작은 공간이나마 휴과 풀, 나무와 같은 다양한 자연생태 요소를 활용해 만든 생태놀이터이다.

놀이터에 사용된 재료는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나무와 흙과 같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했다. 또 자연친화적인 소재로 꾸며져 있어 안전하며 아이들의 호기심과 모험심 상상력을 키울 수 있어 부모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노후화된 공원시설을 정비



해 우범지역으로 우려되었던 울타리를 모두 제거해 사방에서 훤히 보며 걸을 수 있는 잔디로를 조성했다.

생태놀이터는 성장기 어린이들의 신체를 균형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풍과놀이대 ▲언덕기궤도 ▲나무다리 놓기 ▲네트놀이대 ▲자갈밭 ▲세족장 등 자연소재의 놀이요소를 도입해 어린이가

자연과 어우러져 놀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됐다.

군산시 관계자는 “꿈담음 놀이터를 통해 어린이가 꿈을 담으며 놀이와 체험을 통해 정서를 함양하고 창의성이 발달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에게는 힐링과 휴식공간이 제공되어 행복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전북서부보훈청, 호국보훈의 달 포상 전수식

전북서부보훈지청은 지난 7일 오후 3시 전북서부보훈지청 3층 교육장에서 모범 국가유공자와 대외 유공인사 등 11명을 초청하여 2016년도 호국보훈의 달 포상 전수식을 가졌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매년 호국보훈의 달에 모범국가보훈대상자 및 대외유공인사를 포함 격려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꾀하고 있다. 이날 전수식에서는 모범국가유공자를 비롯하여 국가보훈

시책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대외 유공인사에게 국가보훈처장 표창 국방부 장관 표창 및 전라북도지사 표창과 기념품을 전수했다.

이우실 전북서부보훈지청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나라를 위해 애쓰신 분들에게 존경심과 보훈의 의미를 되새겨 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원광대 ‘1학과 1기업창업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창업지원단은 학과별 창업지도교수와 1학과 1기업창업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대학본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16개 학과에서 선정된 22개 팀이 참여해 협약을 맺었으며, 1학과 1기업창업 특성화 프로그램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회와 함께 소통네트워킹이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창업지도교수는 대학생 및 교직원들이 향후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조사 활동 및 창업아이템 개

발 등 구체적인 창업 예비 활동을 지도하고, 학생들과 함께 학내 창업포토 조성하고 각종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창업지원단은 책임 멘토 상시 지원과 1학과 1기업창업 워크숍, 경진대회,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며, 향후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 사업화 등 실질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우수 창업자를 보육할 계획이다.

/익산=장양원기자